고용·노동브리프 제108호(2022-02)

KLI EMPLOYMENT & LABOR BRIEF

발행인 김승택 원장직무대행
편집인 김유빈
편집교정 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3
FAX 044-287-6089

발행일 2022년 12월 20일

2022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3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3(jwkim@kli.re.kr)

2022년은 2021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고용회복세가 지속된 시기였다. 2021년의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했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이 양적활력을 회복했다.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비대면서비스업 위주의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었다. 3분기부터는 그간 회복이 부진했던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대면서비스업 고용의 회복세가 나타났다. 다만, 최근 고용증가폭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과 금리 및 물가 인상, 대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시차를 두고 노동시장에 반영될 수 있어 내년의 고용성과는 예년 수준보다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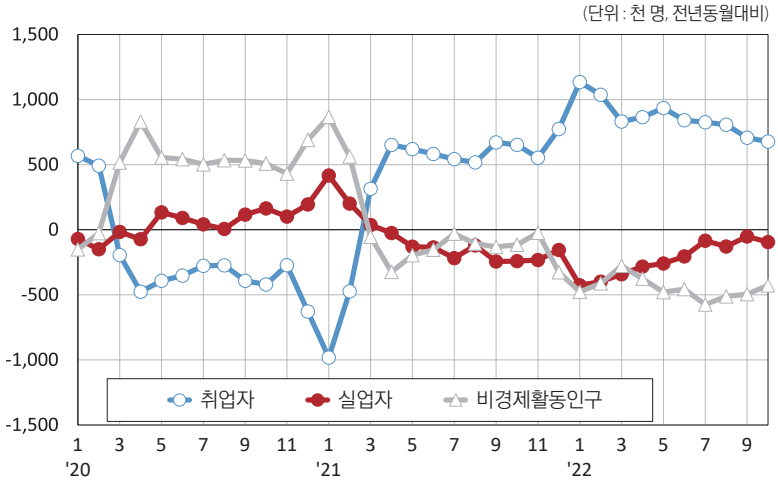
I. 2022년 노동시장 개관

고용지표 호조의 지속

계절조정 전월대비 취업자는 상반기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횡보 중이다. 5월 이후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나,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화는 크지 않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월대비 고용 수치에서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산업 차원에서는 제조업 고용이 여전히 장기추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는 상반기에는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코로나19 발현 이후 고용회복을 견인했던 보건복지서비스업 중심의 사회서비스업과 비대면서비스업 고용증가는 전반적으로 둔화되었다. 대면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업 고용회복이 여전히 더디다. 반면 도소매 다음으로 고용비중이 높은 음식숙박 취업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종합하면, 2022년 전체적인 고용지표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증가폭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II. 2022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1. 실업률 감소세 둔화

2022년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생활이 정상화되었고 노동시장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온전한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실업률은 1분기 3.5%, 2분기 3.0%, 3분기 2.5%로 매 분기 감소하였으며 3분기 기준으로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전년동기 증감에 있어서는 1분기 -1.5%p, 2분기 -0.9%p, 3분기 -0.4%p로 감소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사실상 장기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향후 추가적으로 감소할 여력은 크지 않다.

실업률은 향후 추가적 감소 여력이 크지 않음

실업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개선되었지만 그 변화 추이는 연령계층별로 차이가 있다. 청년층은 상반기에 실업률 감소를 견인했지만 3분기에는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여 감소세가 빠르게 둔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30대와 40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의 실업률은 2022년 내 꾸준히 감소하면서 3분기 전체 실업률 감소를 이끌었다. 다만 언급하였듯이, 15~29세(6.1%)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의 2022년 3분기 실업률은 1.5~2.7% 수준으로 이직·구직 등 직업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제외한 완전고용 수준을 의미하는 자연실업률에 근접해 있다.

2022년에는 실업률뿐만 아니라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 견조한 하락세를 이어갔다. 2022년 들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실업자와 달리 잠재경제활동인구의 감소세가 작년보다 더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향후 확장실업률 감소를 견인할 요인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2022년 실업률은 포괄적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업 사유에 따른 실업자 추이의 변화도 나타난다(표 1 참조). 취업 경험자가 직장을 떠난 사유별로 증감을 살펴보면 직장 여건과 관련된 요인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한시적 일자리의 종료가 뒤를 이었다. 비자발적 수요 측면 사유로 볼 수 있는 두 요인은 코로나19 발현 시기에 크게 증가했고, 회복기에 감소하다 최근 감소폭이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2022년 눈에 띄는 변화는 일자리의 작업 여건과 관련된 이유로 직장을 떠난 실업자인데, 이들은 2022년 이전에는 대체로 감소하였지만 2022년 2~3분기에는 증가로 전환되었다. 이는 최근 활발한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자발적 이직일 가능성이 있어 수치적으로는 증가했지만 평가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살펴볼 여지가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22년에 감소폭이 더욱 확대

〈표 1〉 실업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2		
	1분기	2분기	3분기
전 체	-389	-249	-88
취업 무경험	-7	-17	-2
취업 유경험(1년 이상)	-74	-64	-20
취업 유경험(1년 미만)	-309	-169	-66
개인/가족 관련	-16	-44	-5
작업 여건	-3	34	33
직장 여건	-189	-99	-73
임시직/일의 완료	-88	-65	-18
기타	-12	5	-3

주 : 개인/가족 관련 사유에는 개인, 가족 관련 이유, 육아, 가사가 포함됨. 직업여건 사유는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을 의미함. 직장 여건 사유에는 직장의 휴·폐업,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이 포함됨. 임시직/일의 완료는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를 의미함. 기타 사유에는 심신장애, 정년퇴직, 연로, 기타가 포함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2분기 감소로 돌아선 이후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2022년 3분기에는 52만 7천 명이 감소하였다. 사유별로 노동시장과 관련이 있는 취업준비와 쉬었음 사유는 2022년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감소폭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활동으로의 이행이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구직단념자 역시 2022년 완연한 감소가 이어졌는데, 2022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3만 6천 명 감소하였고 2분기와 3분기 모두 18만 명 정도 감소하여 감소폭은 소폭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시휴직자는 2022년 노동시장에 특이한 충격이 없었기에 안정화되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일시휴직자 수는 2022년 3월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분기와 3분기 각각 3천 명 증가, 1만 명 감소하여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1~10월 기준 일시휴직자 수는 2022년 49만 5천 명(전체 취업자의 1.8%)으로, 2019년 42만 9천 명(전체 취업자의 1.6%)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 청년층, 중고령층 위주의 고용증가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 중고령층(50세, 60세 이상)의 고용증가가 특징적이다. 청년층의 경우 1~10월 평균적으로는 취업자 증가폭이 컸으나 분기별 흐름을 보면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50대의 경우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취업자 증가폭이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고용률도 크게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인구증가폭이 상당하고 일자리사업 시행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30대는 인구변화가 크지 않은 가운데, 1, 2분기에 비해 3분기 취업자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청년층은 30, 40대에 비해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으나 최근 들어 고용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1~10월 평균 130천 명가량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지위별로는 상용직, 산업별로는 보건복지, 숙박음식점업 순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컸다. 3분기 이후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점점 둔화되어 10월에는 28천 명 증가에 그쳤다.

3분기 20대 취업자 증가폭 둔화는 남성보다 여성

청년층 고용증가는 3분기 이후 점차 둔화

〈표 2〉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기대비)

		1~10월 평균		
		2020	2021	2022
15~29세	인구	-145	-138	-201
	취업자	-165	94	146
	실업률	-0.1	-1.0	-1.6
	고용률	-1.1	1.7	2.7
30대	인구	-143	-147	-128
	취업자	-154	-121	45
	실업률	0.0	-0.1	-0.6
	고용률	-0.6	-0.1	2.0
40대	인구	-67	-71	-76
	취업자	-158	-41	10
	실업률	0.2	-0.1	-0.4
	고용률	-1.3	0.2	0.8
50대	인구	16	-8	35
	취업자	-83	42	216
	실업률	0.4	-0.3	-1.0
	고용률	-1.1	0.6	2.2
60세 이상	인구	626	659	560
	취업자	388	334	450
	실업률	0.1	0.2	-1.0
	고용률	1.1	0.4	1.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에서 더 두드러졌는데, 이는 연초 여성의 고용증가폭이 더 커서 나타난 현상이다. 20대 여성 고용을 졸업 여부별로 살펴보면, 재학자 고용보다 졸업자 고용이 둔화되었다. 그중에서도 전문대졸 고용률 하락폭이 크다. 음식숙박을 제외한 도소매, 협회단체 및 개인서비스 관련 대면서비스업 고용이 감소하였고, 꾸준히 증가하던 보건업(간호 관련) 고용이 둔화된 영향이다. 다만, 2021년 하반기부터 고용이 크게 증가했던 기저영향을 감안하면 당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3분기 20대 고용둔화 속에서도 음식숙박 취업자는 의미 있는 증가를 보였다. 음식숙박 취업자는 20대 초반, 재학생, 임시직 위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아르바이트 관련 고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점차 회복하고 있는 음식숙박업 경기가 청년층 노동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3분기부터 시작된 청년층 음식숙박업 취업자 증가

30대 인구는 약 13만 명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타 연령대 수준의 취업자 증가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취업자가 소폭 늘어났고, 이에 따라 고용률 증가가 이어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성별로는 여성의 고용률 상승폭이 남성에 비해 컸다.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양호하며, 30대 후반 여성은 제조업, 정보통신, 전문과학서비스업 사무직 종사자가 늘었다. 반면 30대 남성은 도소매, 사업시설관리 등에서 취업자 감소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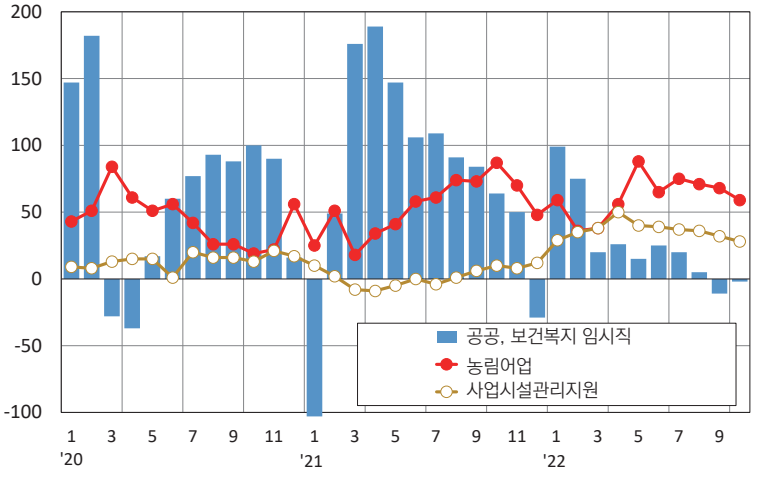
40대는 30대보다 인구 감소폭이 작았음에도 30대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작았다. 따라서 고용률 증가도 30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핵심근로연령층 중 40대 고용이 비교적 더 부진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40대의 고용상황을 연령과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40대 초반 연령대의 도소매업 고용이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40대 후반 남성은 건설업과 도소매업 취업자가 감소했고, 여성은 도소매업, 협회단체 및 개인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컸다.

50대는 인구증가세를 상회하는 취업자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50대 후반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80천 명가량 취업자가 증가했다. 성별로는 종사 산업 분포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고용의 변화도 달리 나타나는데, 남성은 주로 제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건설업 관련 세부 산업) 위주로 고용이 증가했다. 여성은 돌봄 관련 보건복지,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폭이 컸다. 향후 돌봄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0대 여성의 해당 분야 취업자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남성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적으로 50대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산업의 경기가 고용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인구증가를 상회하는 50대 취업자 증가

[그림 2] 65세 이상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임시직 종사자 및 농림어업, 사업시설관리지원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60대 이상 고령층은 그동안 인구증가, 일자리사업 규모 증가, 고령화로 인한 은퇴 지연 등으로 다른 연령대의 고용이 감소하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다만, 2022년에는 고령층 고용증가에 상당 수준 기여했던 일자리사업관련 고용의 비중이 크게 줄었다. 이에 65세 이상 공공행정, 보건복지 관련 임시직이 9월에 감소로 전환한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 감시단속·청소 관련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사업시설관리지원 서비스업 취업자는 같은 시기 증가세를 보였다. 공공부문에서의 고령층 고용이 줄어들었음에도 민간부문 고용이 이를 어느 정도 대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은 앞으로도 비슷한 규모의 고용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간부문 고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60대 취업자 증가

3. 상용직 위주의 고용증가와 자영업자 회복세 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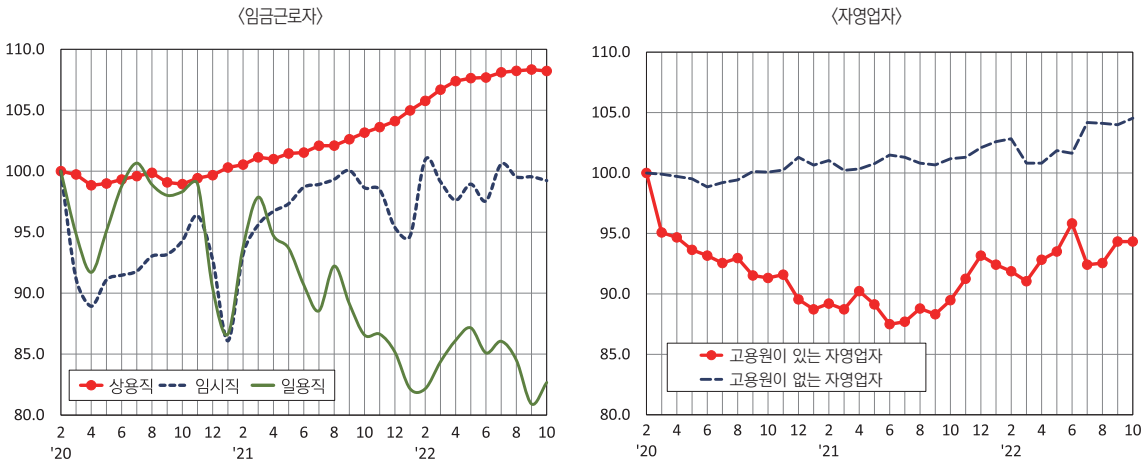
상용직 고용은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증가세가 2022년에도 이어졌다. 대다수 산업의 상용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교적 산업 경기 회복이 부진한 도소매업 상용직도 증가 중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순으로 상용직 증가폭이 컸고, 3분기에는 음식숙박업 상용직도 상당한 규모로 증가했다. 상용직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영향으로 고용증가폭이 일시적으로 줄었던 것이지, 고용 자체가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절조정계열로 보아도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의 고용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고용 호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확인 없이 해당 상용직의 증가를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임시직은 2022년 1분기 이후 회복세가 주춤하면서 3분기에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도소매업 임시직은 여전히 감소 중이고 직접일자리사업 영향이 줄어들면서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 임시직도 감소했다. 다만, 3분기에는 숙박음식점업 임시직의 회복세가 보인다. 임시직의 고용증가가 향후 숙박음식점업 전체 고용의 회복세 신호가 될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계절조정계열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고용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나 장기추세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 고용의 회복은 더디다고 평가할 만하다.

일용직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 중이다. 고용비중이 가장 큰 건설업 일용직이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 일용직의 고용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들 산업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구인난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인다.

2019년 이후로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와 자영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 양상

[그림 3] 코로나19 확산 이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계절조정계열)



주 : 2020년 2월=100.
자료 : 통계청, KOSIS.

이 지속되었으나, 2022년에는 고용주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자영업자 고용상황이 일부 변화했다. 2분기 이후 고용주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인력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고용주가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고용주 내에서 산업별 종사 비중이 높은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의 경우 큰 변화는 없었지만, 3분기 이후 음식숙박업 고용주가 소폭 증가했다. 고용주 증가를 제한할 수 있는 부정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민간소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음식숙박업에서 나타나는 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현재와 같은 규모 정도의 고용주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

서서히 나타나는 자영업자 고용 회복세

자영자는 농림어업과 운수창고업의 고용비중이 높고 고용증가폭도 크다. 반면 도소매, 기타 개인서비스 등 대면서비스업 자영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특히 다른 종사상 지위에서는 회복세를 보이는 음식숙박업에서도 자영자는 여전히 줄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음식숙박업 자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기저가 작용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금껏 자영자 고용은 노동시장 내에서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경기가 좋을 때는 자영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자영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최근에는 전체 고용이 양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반기에 다소 증가폭을 줄이던 자영자 고용이 3분기 들어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침체기의 자영자 고용증가 양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2년 제조업 고용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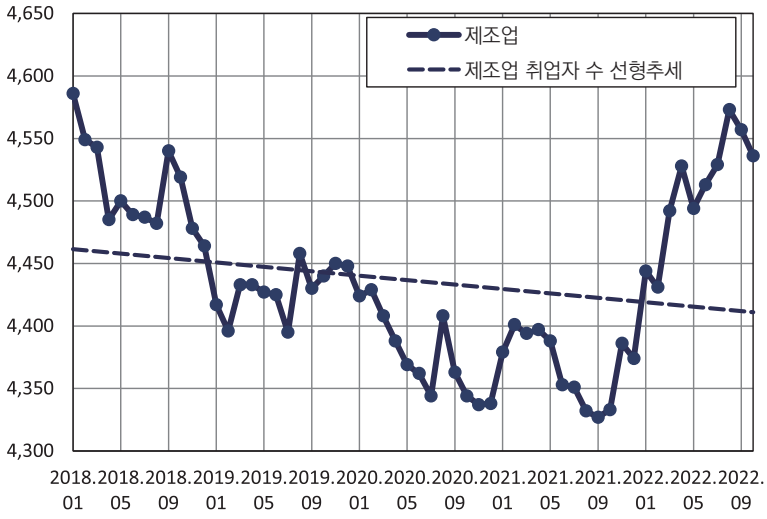
4. 제조업 고용 연중 큰 폭의 증가 지속

2022년 제조업 고용은 상반기 취업자 증가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져 전년동기대비 1~10월 평균 14만 4천 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과거 같은 기간의 취업자 증가와 비교해 볼 때,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큰 폭의 증가였다. 제조업 취업자 수 계절조정 자료를 보아도 2022년 들어 전월대비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난다(그림 4 참조). 최근인 9~10월 연속으로 전월대비 취업자가 감소하였으나 이전 취업자 증가세를 감안하면 아직은 우려할 수준이라고 볼 순 없으며, 최근까지도 제조업 취업자 수 장기추세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의 호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에서도 확인된다(그림 5 참조).

제조업 고용은 매월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며 2022년 내내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향후에도 2022년과 같은 수준의 증가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경제상황과 대외여건이 2023년 제조업 고용에 긍

[그림 4] 제조업 계절조정계열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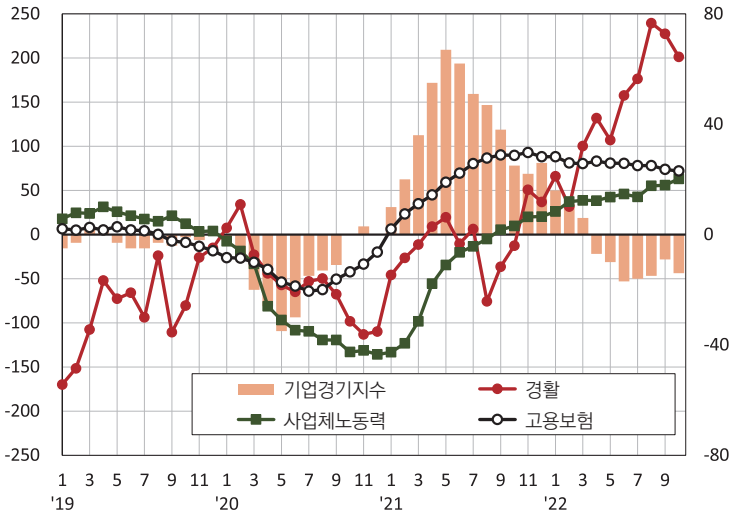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그림 5] 제조업 기업경기지수 증감 및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 p,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ECOS.

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경제상황이 고용시장에 반영되는 데에는 시차가 존재함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후 나타난 경제상황이 하반기 제조업 고용에 모두 반영되었다 보기는 어렵다.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 전후의 높지 않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의 제조업 고용은 2022년과 같은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2022년 제조업 고용증가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의 고용이 주도했다. 식료품 제조업 고용도 높은 내수 및 해외 수요를 바탕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용상황이 좋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상반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8월 이후 반도체 수출은 전방산업에서의 수요 둔화, 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며 10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였다. 수년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오던 반도체 생산도 9월부터는 감소로 전환되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둔화가 즉각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는 기간과 그 강도에 따라 이후의 고용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도 2022년 고용증가폭이 컸던 업종으로, 연중 꾸준히 증가세가 나타났다. 해외에서의 인프라 및 설비 투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건설 및 공작 기계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전방산업의 수요 둔화와 최근 중국으로의 수출도 부진했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반기계 수출은 둔화되었다. 기계 수출이 회복되고 생산과 국내수요가 향후에도 증가한다면 2023년에도 기계장비 제조업 고용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현재 우리 경제 여건상 기업투자가 증가할 여지는 높지 않다.

전기장비 제조업은 이차전지 수요가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증가하면서 생산뿐 아니라 수출도 큰 폭으

내년 수출 및 생산에 따라 기존 고용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전자·컴퓨터·통신 및 기계장비 제조업

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수출은 해외에서 친환경 정책기조가 지속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어 수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기장비 제조업 고용은 2022년에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올해 이차전지 수요 증가세는 이차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용증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차전지 수요 증가로 전기장비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용증가

올해 자동차 제조업은 고용회복세가 나타났던 2021년 하반기보다는 회복세가 다소 약해졌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업 업황은 하반기 이후로 상당히 좋아지기 시작했다. 부품 수급난이 일부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생산이 증가하고, 해외에서의 국내 브랜드 SUV 및 친환경차 수요가 지속되면서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수요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도 생산 및 내수 판매가 큰 폭으로 변동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제조업 업황은 내년에도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고용 역시 올해 이상으로 증가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제조업 업황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도 증가 기대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고용은 올해 하반기 들어 점차 개선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2월 이후 생산지수가 증가세를 나타냈고 수주량도 증가했으나, 금리인상에 따른 기업의 금융 비용 증가, 지속되는 구인난 등으로 인해 업황 회복에 비해 고용회복이 더디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당분간 생산이 증가를 이어가고 조선업에서의 구인난이 완화되어 간다면 향후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고용은 상당 기간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불리한 여건 속 건설업 고용

2022년 건설업 취업자 수는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크게 약화되었다. 1월 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증가한 것을 정점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이후 축소되는 추세이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나 사업체 종사자 수 자료에서는 경활 자료에서와 같은 고용둔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2022년 건설업 고용이 다른 해에 비해 특별히 부진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건설업 고용증가세가 지금보다 더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내년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건설 투자도 부진이 예상된다. 또한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환경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 업황 부진은 임시·일용직을 시작으로 비교적 빨리 고용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다소 불리한 여건 속에 있는 건설업 고용은 지난해와 같이 양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경기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내년 건설업 고용은 이전의 증가세 유지 어려울 전망

6. 서비스업 고용의 회복세

2022년 1~10월 평균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62만 명 증가하였다. 2020년 1~10월 기간 22만 명 감소하고 2021년에 다시 23만 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상반기 서비스업 고용증가 흐름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재확산에 따른 리스크가 서비스업에 더 이상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고용이 감소하고 있던 도소매업의 경우 2022년 들어 고용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2022년 7월을 고점으로 8월부터 다시 고용이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직종별로 경영 및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직에서 주로 증가했던 것이 상반기의 고용회복의

〈표 3〉 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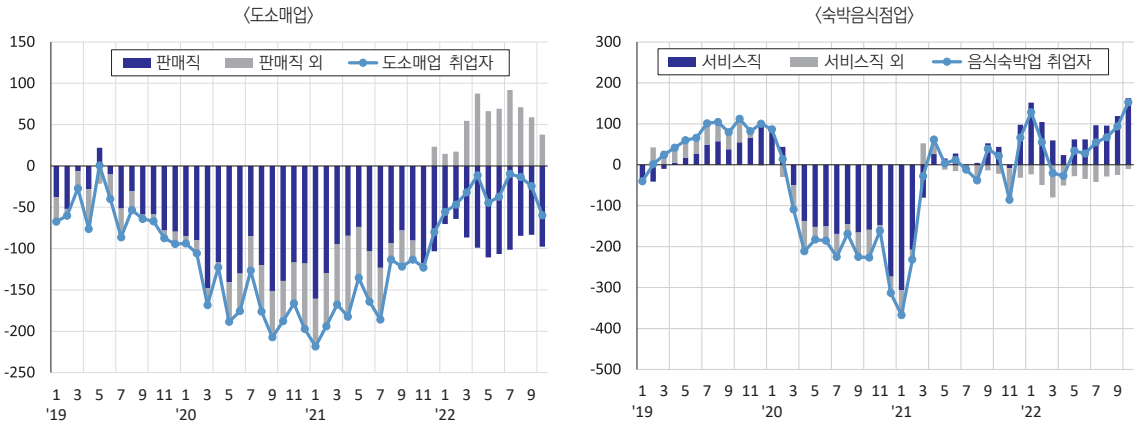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0년 1~10월	2021년 1~10월	2022년 1~10월
도소매업	-155	-160	-34
운수창고업	56	97	86
숙박음식업	-144	-54	57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서비스 사업지원	-29	172	193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77	272	322
예술여가, 협회단체, 개인서비스	-28	-93	-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6] 직종별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도소매업은 판매직 중심으로 고용감소

숙박음식점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고용 회복

주된 원인이었는데 업종의 특성상 사무직 고용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과 판매업은 최근 3년 동안 매월 10만 명 내외로 감소하고 있어 도소매업 고용은 내년에도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숙박음식점업은 2022년 1~10월 평균 8.6만 명 증가하면서 상반기 회복흐름을 넘어서고 있다. 계절조정 기준 2022년 7~10월 평균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약 220만 명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2020년 1~2월, 약 230만 명)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차년의 숙박음식점업 고용흐름은 경기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수창고업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높은 취업자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비대면 소비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의 운수창고업 취업자, 고용보험가입자 수를 100으로 두었을 때, 1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내년에도 비슷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 금융보험업은 2021년 증가폭이 확대되다가 최근 둔화되었는데, 부동산 거래 감소, 금융보험업종의 점포 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둔화흐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2021년의 증가폭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IT산업 및 반도체 등 정보, 과학기술산업 육성 방향이 내년에도 유지된다면 현재의 고용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은 50세 이상의 중고령층 고용은 증가하고 있다. 향후 미화나 경비 관련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 금융보험업은 고용감소,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고용증가 지속

7. 사회서비스업 고용둔화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및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하 사회서비스업)은 연초 약 40만 명의 취업자 증가가 나타났으나 60세 미만 연령층의 고용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으면서 하반기에는 20만 명의 취업자 증가를 기록하면서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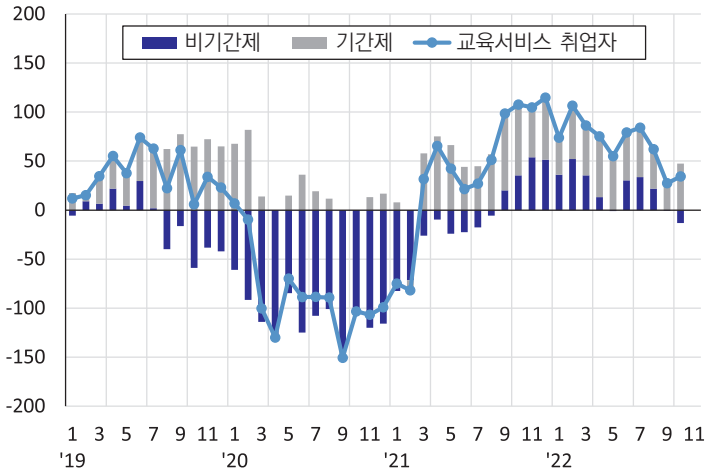
공공행정은 2020년 하반기 당시 코로나19로 발생한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한 한시적 생계형 일자리 증가에서 현재는 상용직, 20~30대,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 취업자의 대부분은 기간제로 채워져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사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빈자리를 기간제 일자리로 채우는 현상이 통계에 반영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소규모 지역의 학교 통폐합 이슈 등 기간제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은

기간제 중심의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그림 7] 기간제 여부별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서비스직, 단순노무직이 아닌 전문직, 사무직 위주로 증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보다는 전문직, 대규모 사업체,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진입이 활발한 보건업에서 주로 취업자가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를 견인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비중은 2022년 하반기 들어 줄어들고 있다. 위에서 상술한 것처럼 민간부문에 의한 고령층 고용증가분이 공공부문에서 줄어든 고령층의 고용을 상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고용비중 감소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보건업 고용증가

III. 2023년 고용 전망

2023년 연간 고용전망에 있어 전제가 될 국내의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요 경제전망 기관에 따르면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경제는 2023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2%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내년 성장률을 종전 예상치인 2.1% 대비 0.4%p 낮은 1.7%로 전망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로 제시했다. 코로나19 국면인 2020년(경제성장률 –0.7%)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추락한 시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경제성장률 0.8%)이었음을 고려하면 내년 한국경제는 완연한 경기둔화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완만한 경기둔화 양상에 영향을 받을 고용 상황

하강국면에 있는 경제상황에 따라 고용이 급격히 감소할지는 미지수

내수여건 역시 부진이 예상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안정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6%로 올해에 비해 더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물가목표치인 2.0%를 크게 상회하는 전망수치이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와중에 금리인상의 여파가 겹치면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 저하와 재화소비 둔화로 소비, 생산, 고용이 연쇄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전망에 앞서 생산과 소비 지표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全)산업 생산이 8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10월 소비 역시 0.7% 감소했다.

다만, 하강국면에 있는 경제상황이 내년 급격한 고용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선 2021년 이후에도 원자재 수급불균형과 글로벌 물류 차질, 미-중 간 무역갈등 및 러-우 전쟁 등 경제적 하방위험 요인이 상존했으나 고용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본원 및 주요 연구기관들은 최근 거시경제 상황과 고용시장 간의 연계성이 약화되었거나 시차를 두고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상기 전망요소를 반영하여 추산한 본원의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연간 고용전망은 다음과 같다.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심화, 글로벌 경제 및 내수시장 위축,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추가적인 특이점이 연내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22년 하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722천 명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취업자 증가분 941천 명을 반영한 2022년 연간 취업자 수는 831천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본원이 추산한 2023년 취업자 수는 2022년 대비 89천 명 증가한 28,193천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성장률 하락과 물가, 금리 등 경제위축에 따른 취업폭 둔화가 반영되었고, 2022년의 취업자 증가폭 79만 명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지만, 본 전망치가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고용위기 수준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가 발현된 2020년 이후, 2021년 취업자는 전년대비 370천 명 증가했고, 이어 2022년에는 790천 명 수준의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계절조정계열로도 코로나19 이전 고점(2020년 2월) 대비 2022년 10월 계절조정 취업자 수가 102.5% 수준에 있고 장기추세를 상회하는 만큼, 2022년의 고용호조세는 2023년 취업자 증감에 있어 높은 기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원이 추산한 89천 명 수준의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최근까지의 고용회복세가 점진적 둔화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고용전망을 상·하반기로 구분하면 2023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38천 명, 하반기 40천 명 증가 수준으로, 반기별 고용흐름에 있어서도 고용회복세가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최근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거나 글로벌 경기위축이 심화될 경우 해당 거시경제적 하방위험이 국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고용증가세 둔화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양적 고용둔화가 일자리 질의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직업훈련 강화 및 고용서비스 확충 기조는 이러한 면에서 적절한 대응이라 할 것이나, 추가적인 경기하강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고용장려금 및 직접일자리 등을 포괄한 균형잡힌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실효성 제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고용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실효를 거두어 작금의 경기악화 추세가 고용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성장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해 본다.

〈표 4〉 2023년 고용 전망

(단위 : %, 천 명)

	2022			2023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취업자	27,858	28,350	28,104	27,996	28,391	28,193
(증가율)	3.5	2.6	3.0	0.5	0.1	0.3
(증감수)	941	722	831	138	40	89
실업률	3.2	2.6	3.0	3.8	2.9	3.3
고용률	61.6	62.6	62.1	61.7	62.4	62.1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본 「KLI 고용·노동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KLI
EMPLOYMENT
& LABOR
BRIEF